

## 재중 한국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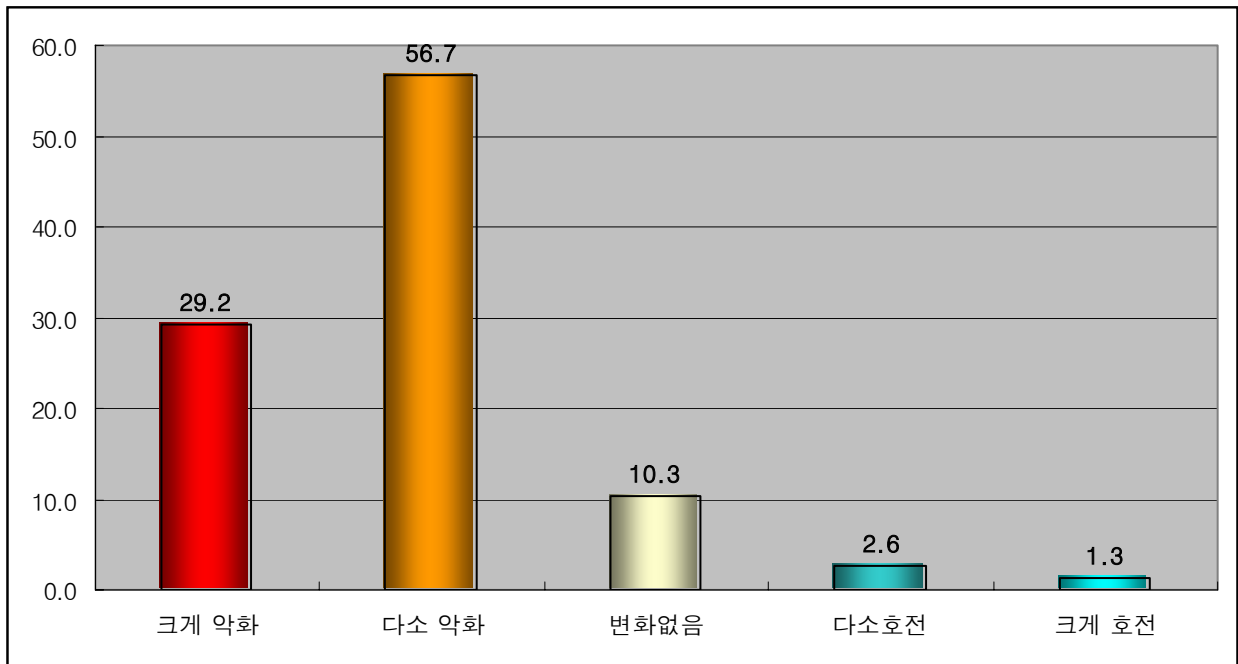
### 조사 개요

구 분	내 용
조 사 대 상	중국 진출 한국기업
표 본 크 기	350개사
회 수 율	67.1%(235 개사)
조 사 방 법	자기기업식면접(self-administered Interview)
조 사 기 간	2008년 1 월 14 일 ~ 2 월 1 일 까지
조 사 기 관	대한상공회의소, 중국한국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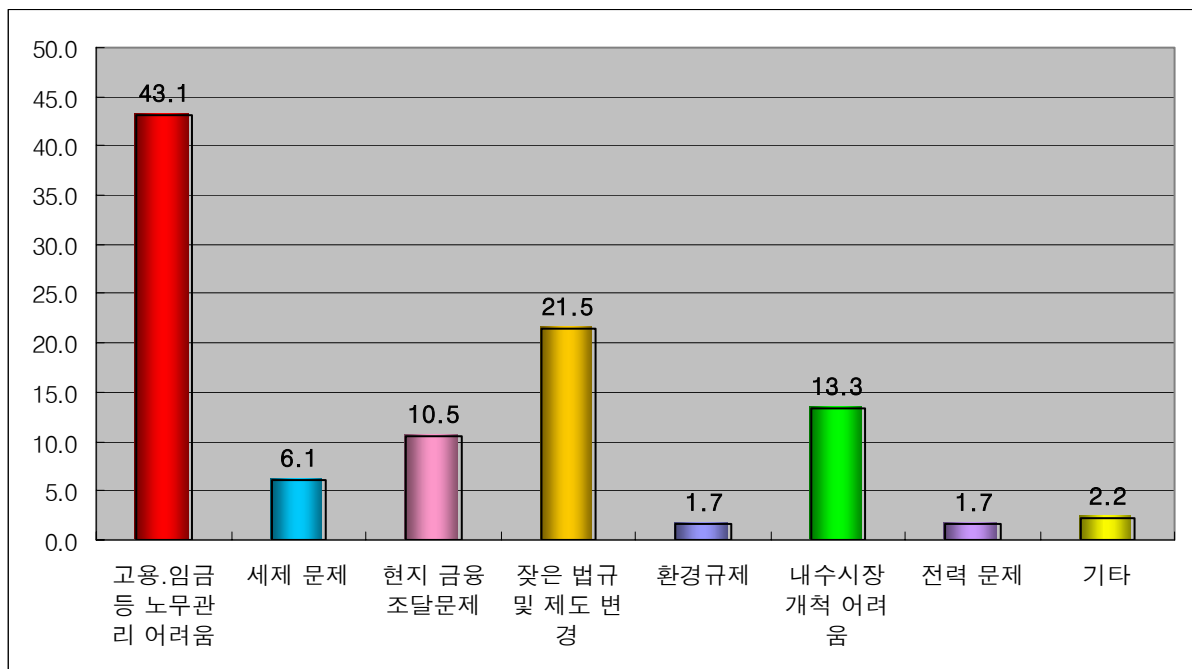
### 주요 조사 결과

#### 1.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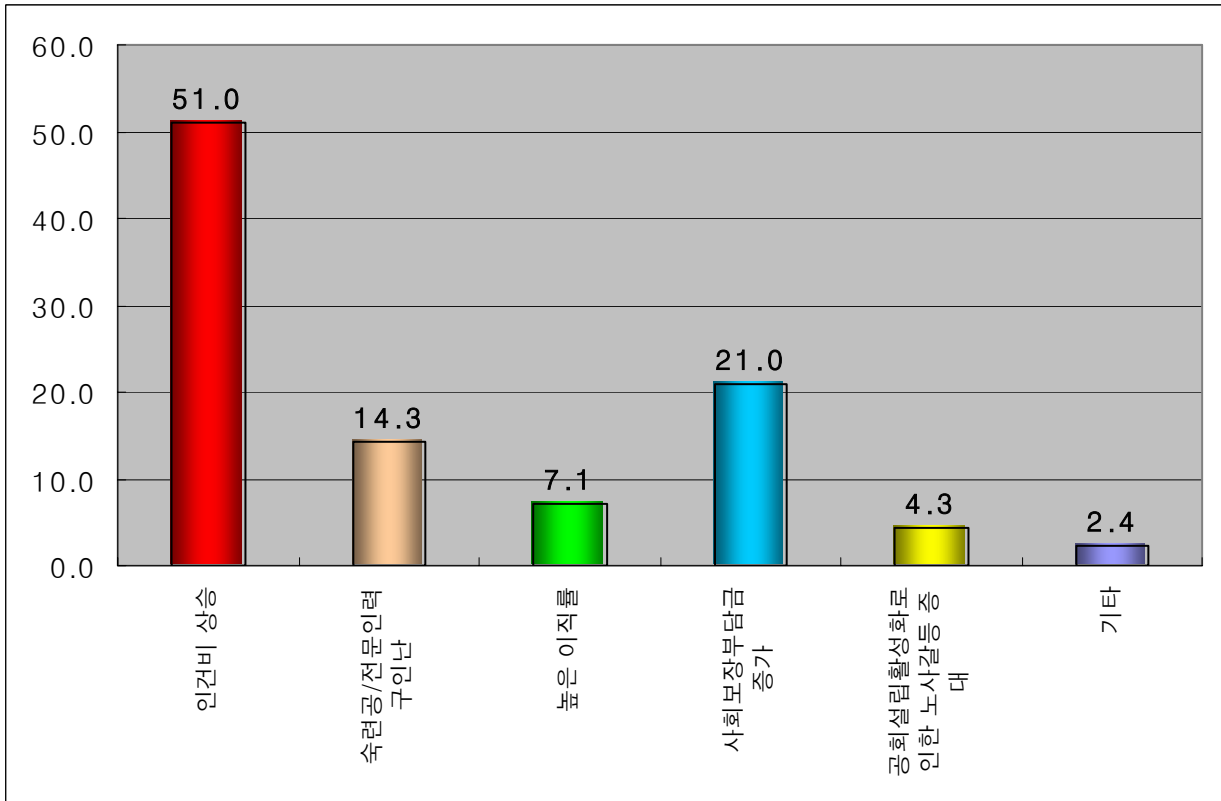
문1. 최근 중국정부의 對 외자기업 정책이 급변하는 가운데 회사가 느끼는 경영환경 전망을 묻는 설문에 대해 응답업체 전체의 85.9%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특히 제조업체의 36.3%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또한 대기업은 5.6%, 중소기업은 31.2%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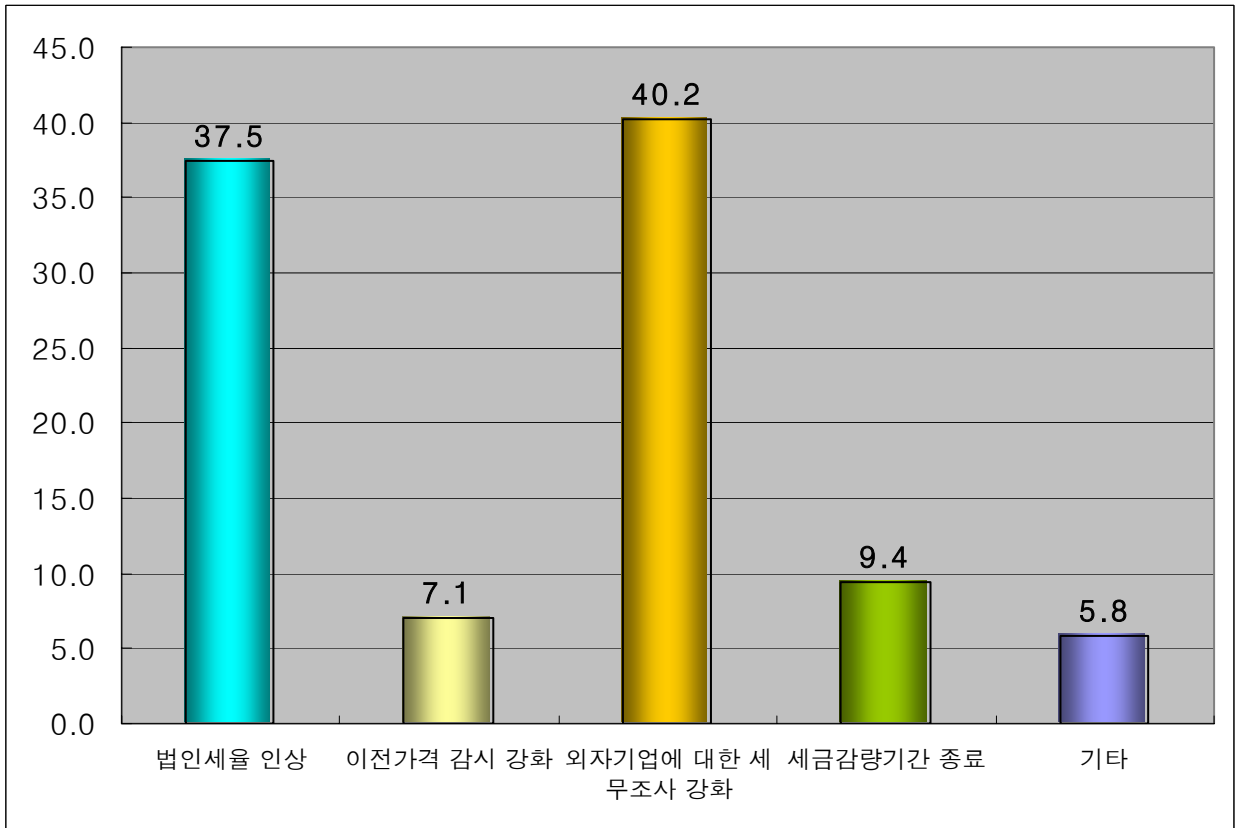
문2. 중국내 경영활동을 하며 크게 느끼는 애로 사항은 전체의 43.1%가 고용.임금등 노무관리의 어려움이라고 답하고 있다. 제조업종은 노무관리의 어려움에 48.2%가 응답했으며 서비스업종은 34.1%가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. 또한 대기업은 12.5%, 중소기업은 과반에 접근한 46.1%가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선택하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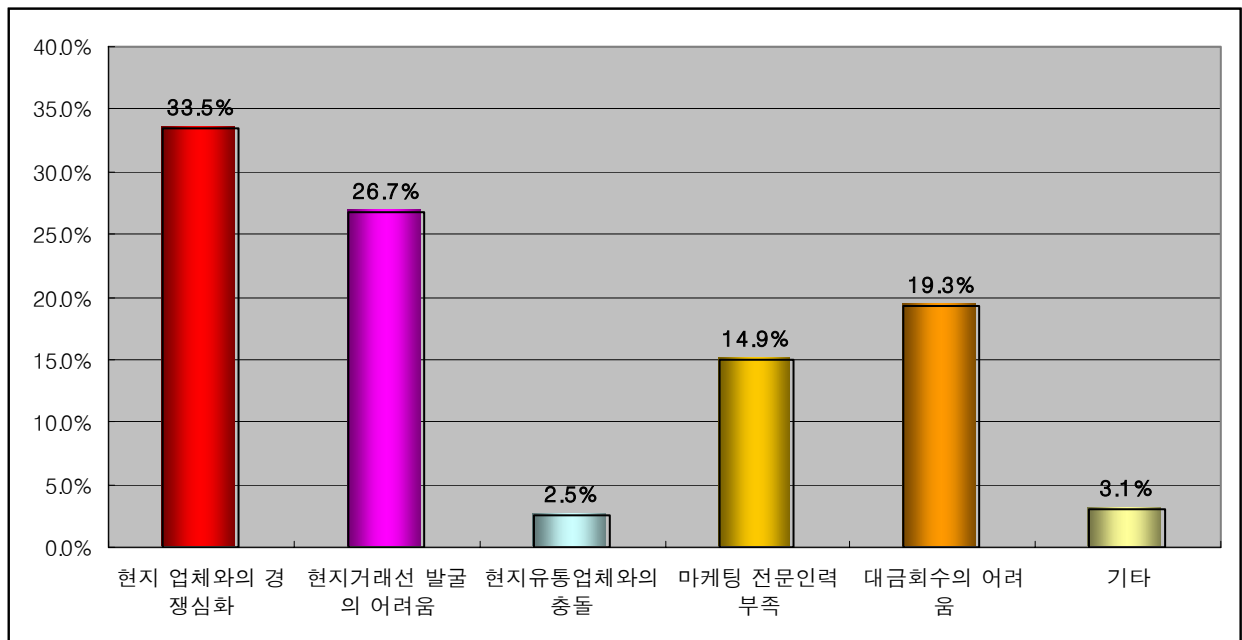
문3. 노무관리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제조업체는 51.8%, 서비스업체는 48.8%가 인건비상승을 제일로 꼽았다. 또한 사회보장부담금 증가에도 제조업체 21.6%, 서비스업체 23.3%가 응답하고 있어 최근 중국의 변화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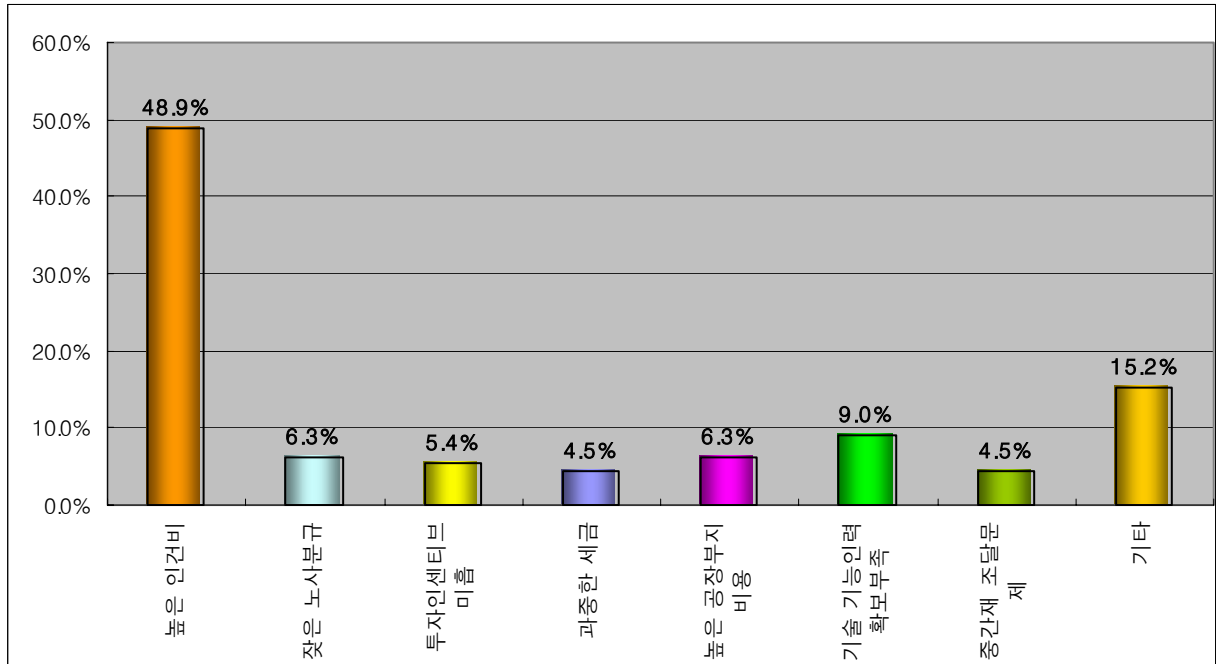
문4. 세제분야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강화로 나타났다. 전체의 40.2%가 세무조사강화에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전체의 37.5%를 차지한 법인세율 인상이 그 뒤를 쫓고 있다.  
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44.4%, 중소기업 39.8%가 세무조사강화를 선택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 47.8%, 제조업종 39.1%가 각각 세무조사강화를 선택했다.



문5. 중국 내수판매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체의 33.5%가 현지업체와의 경쟁심화를 선정했다. 다음으로는 현지거래선 발굴의 어려움을 26.7%가 선택하고 있다. 제조업체는 현지업체와의 경쟁심화를 1위로 꼽고 있으며 서비스업체는 현지거래선 발굴의 어려움을 1위로 선택하고 있다. 특히 대기업의 과반을 상회하는 63.6%가 현지 업체와의 경쟁심화를 지적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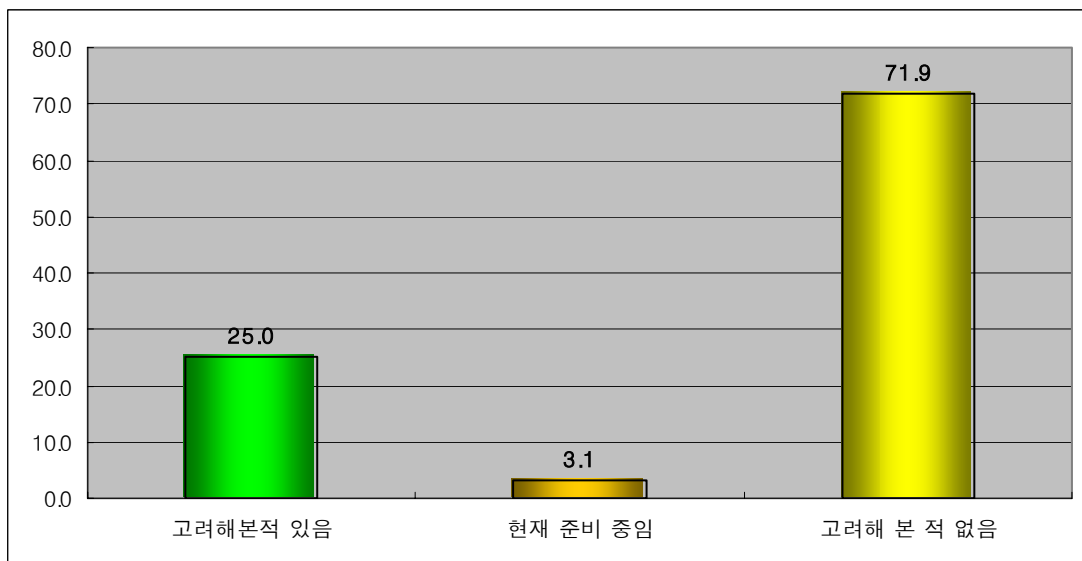


문6. 중국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한국복귀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해 전체의 48.9%가 한국의 높은 인건비를 지적하고 있다. 중소기업의 51.5%와 제조업의 54.8%가 높은 인건비를 지목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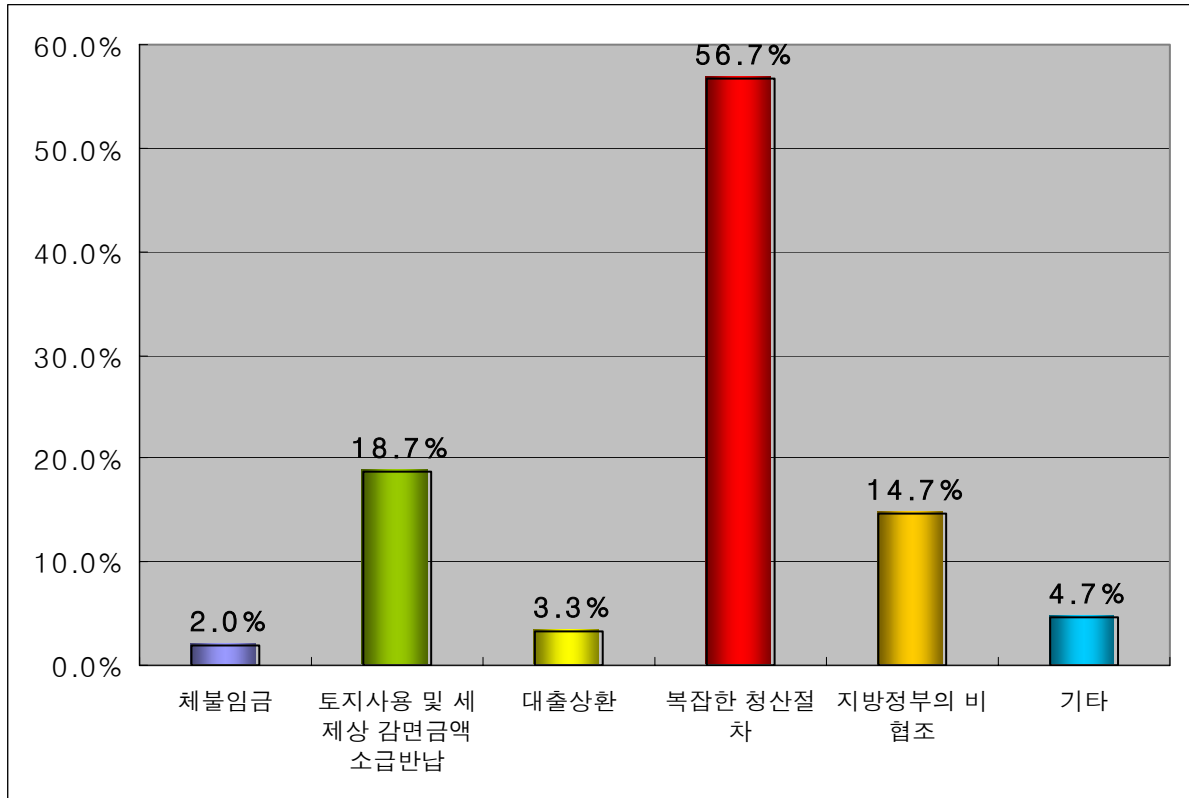


문7. 청산을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준비한 적이 있는지 물어 보았다.

이에 대해 서비스업체의 25.0%, 제조업체의 26.3%가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. 또한 중소기업의 26.7%가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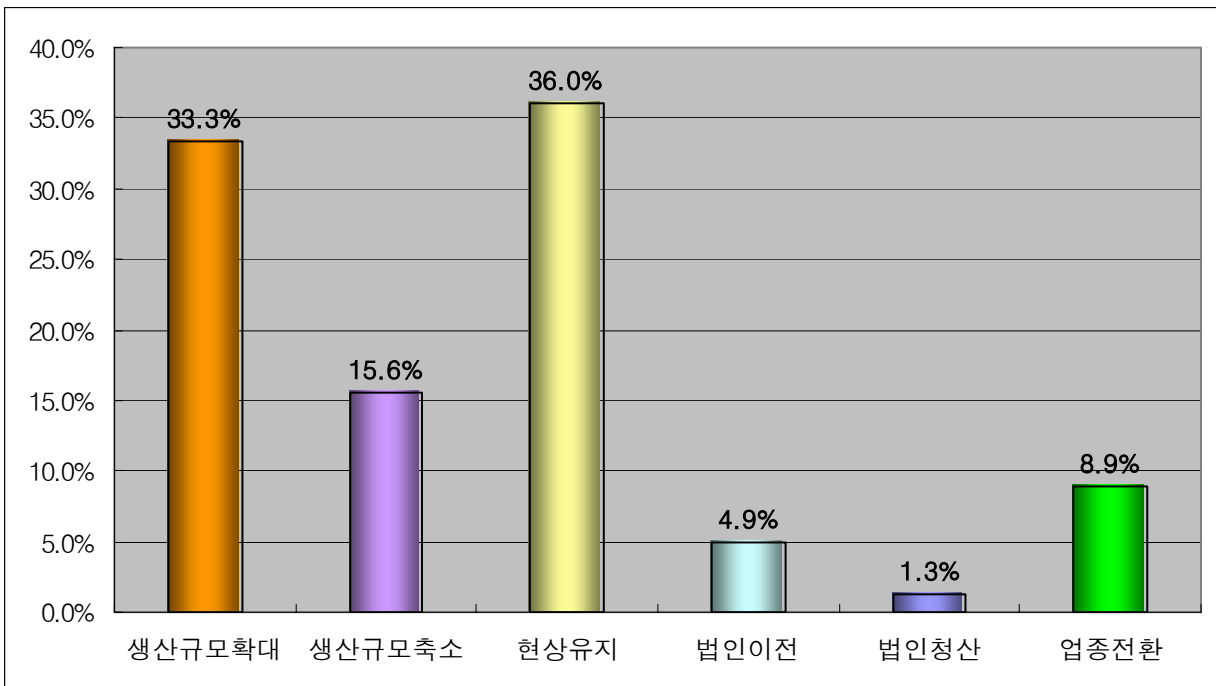
문8. 청산시에 가장 큰 애로요인은 제조업, 서비스업 공히 한목소리로 복잡한 청산절차를 첫째로 지적했다. 전체의 56.7%가 짚었다. 다음으로는 18.7%를 차지한 토지사용 및 세제상 감면금액 소급반납이었다. 지방정부의 비협조도 전체의 14.7%를 차지하며 주요 애로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.



## 2. 향후 경영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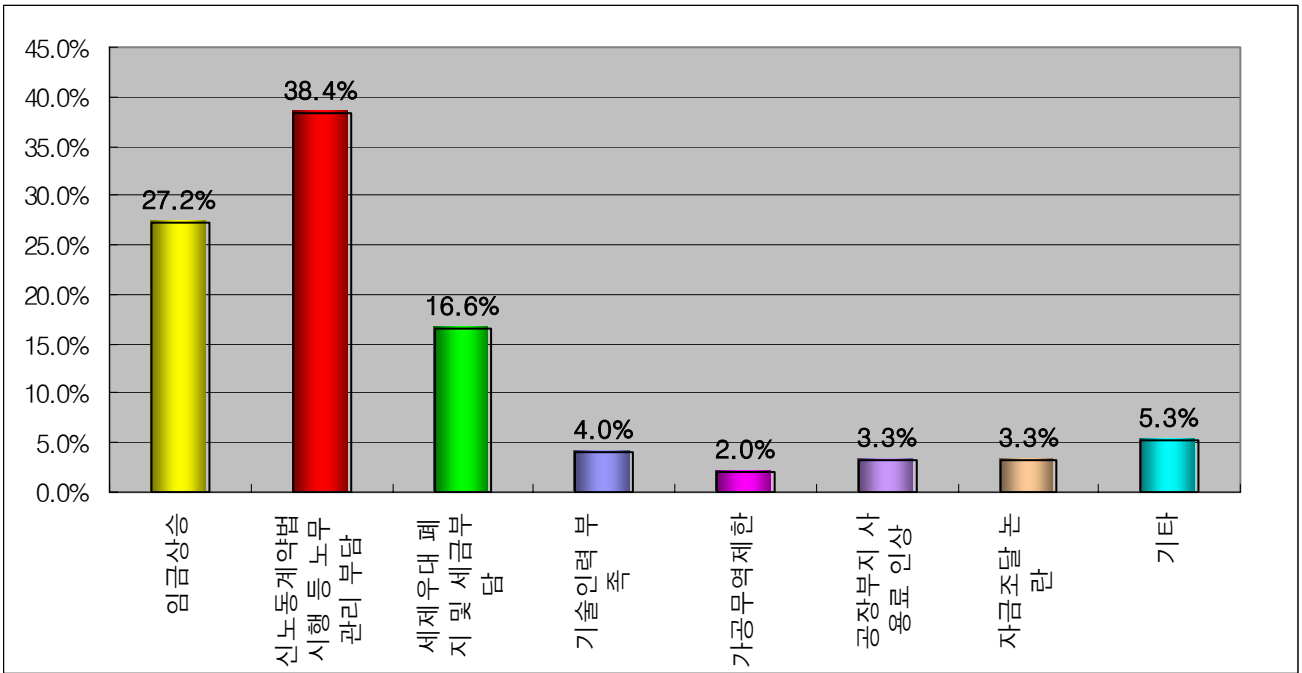
문9. 이처럼 중국의 외자기업 정책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향후 경영전략을 설문했다.

그런데 전체의 36.0%가 현상유지라고 답변하고 있다. 서비스업체의 43.2%, 제조업체의 31.6%가 현상유지를 택했다. 2순위는 생산규모 확대가 차지했다. 전체의 33.3%가 선정했다. 대기업은 현상유지와 생산규모 확대가 46.7%로 동일한 응답비중을 나타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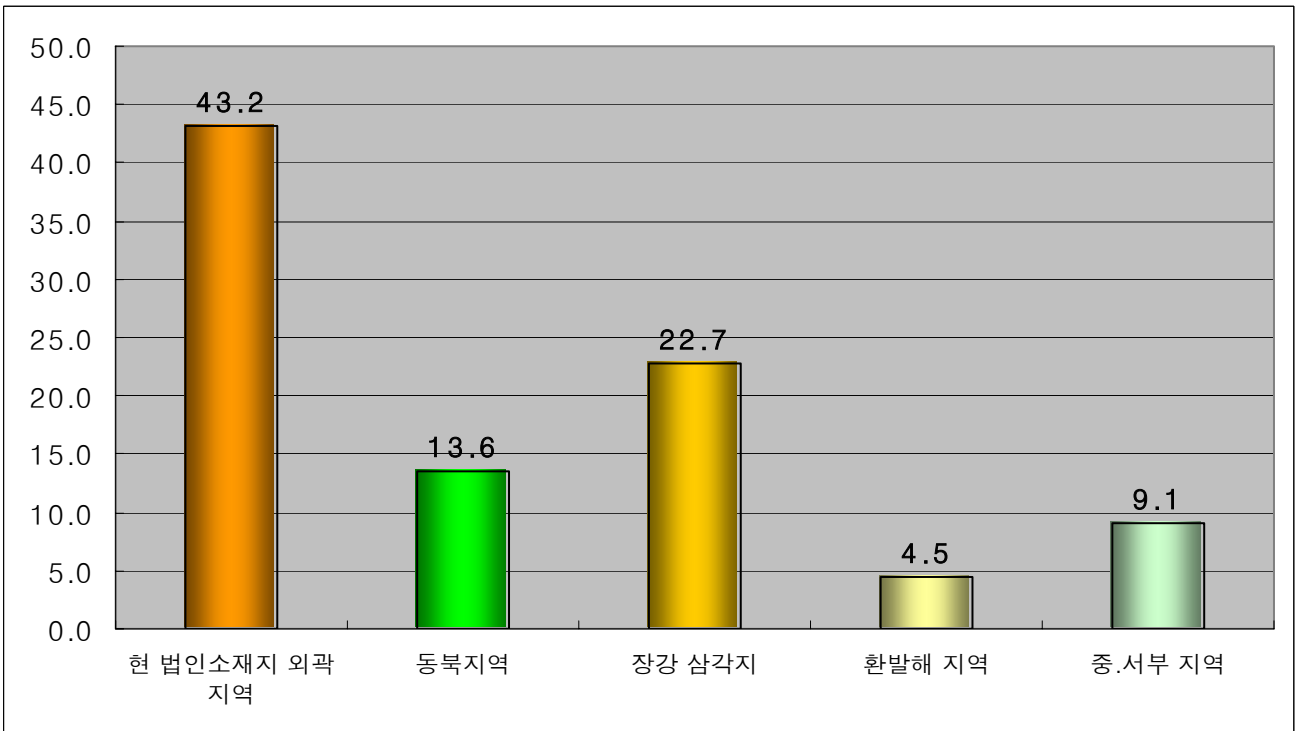


문10. 재중한국기업들 중 생산규모축소, 법인 이전, 법인 청산, 업종전환을 현재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?

응답업체들은 신노동계약법 시행 등 노무관리부담을 첫째 애로요인으로 선정했다. 전체의 38.4%가 이 답변에 표를 했다. 두 번째로는 27.2%를 차지한 임금상승이었다. 반면에 대기업은 세제우대폐지 및 세금부담 항목에 37.5%가 답변했다. 또한 제조업은 임금상승(32.7%)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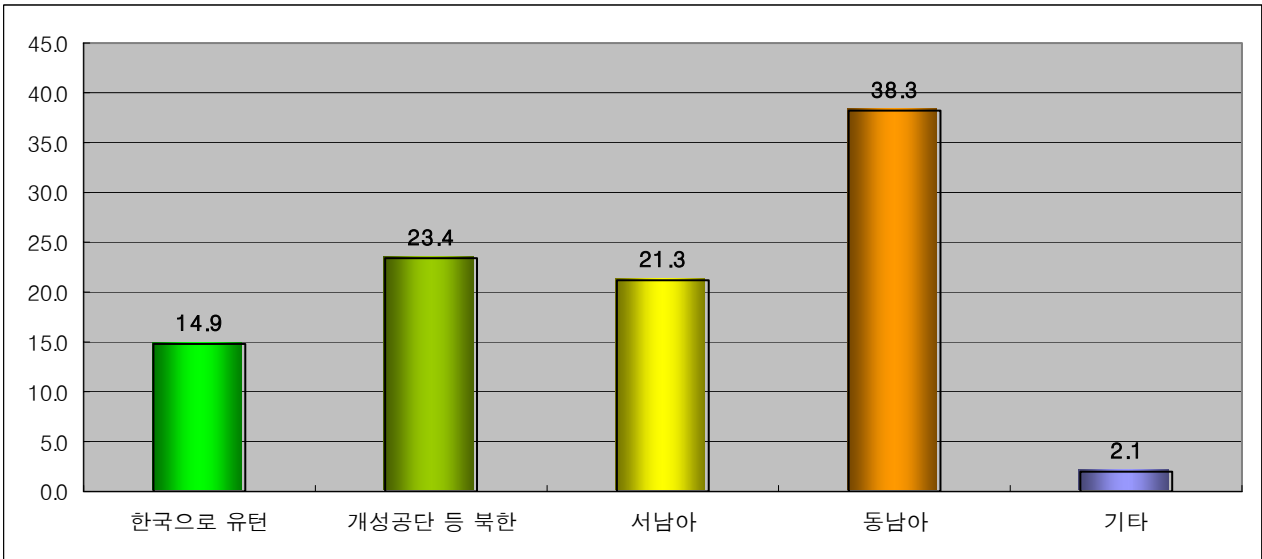
문11-1.중국 내에서 법인이전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지역으로서는 현 법인소재지 외곽지역을 가장 높게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 전체의 43.2%가 현 회사의 외곽지역을 선택하겠다고 답변했다. 특히 제조업체는 50.0%가 현 법인소재지 외곽지역이라고 답변했다. 그러나 서비스업체는 장강삼각지에 30.8%가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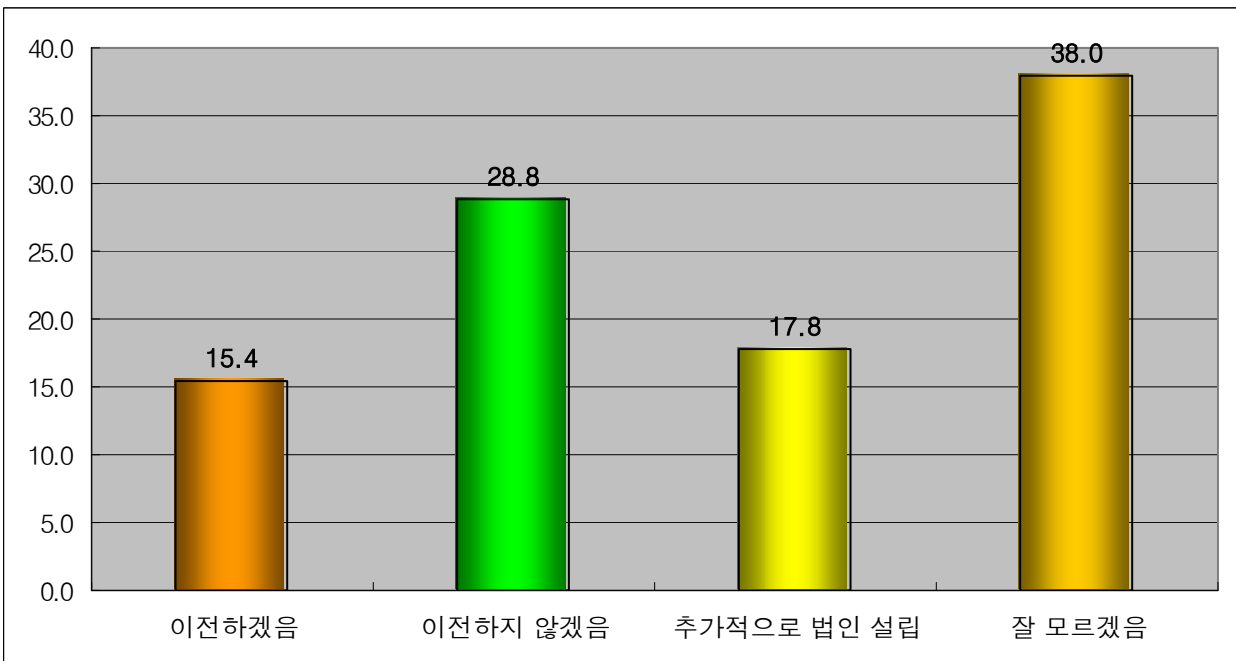


문11-2.중국 외로 법인이전을 고려한다면 전체의 38.3%가 동남아를 선택하겠다고 답변했다.

다음으로는 개성공단 등 북한이 23.4%로 나타났으며 서남아는 21.3%, 한국으로 U턴이 14.9%의 응답율을 나타냈다. 서비스업체는 36.4%가 한국으로의 U턴에 응답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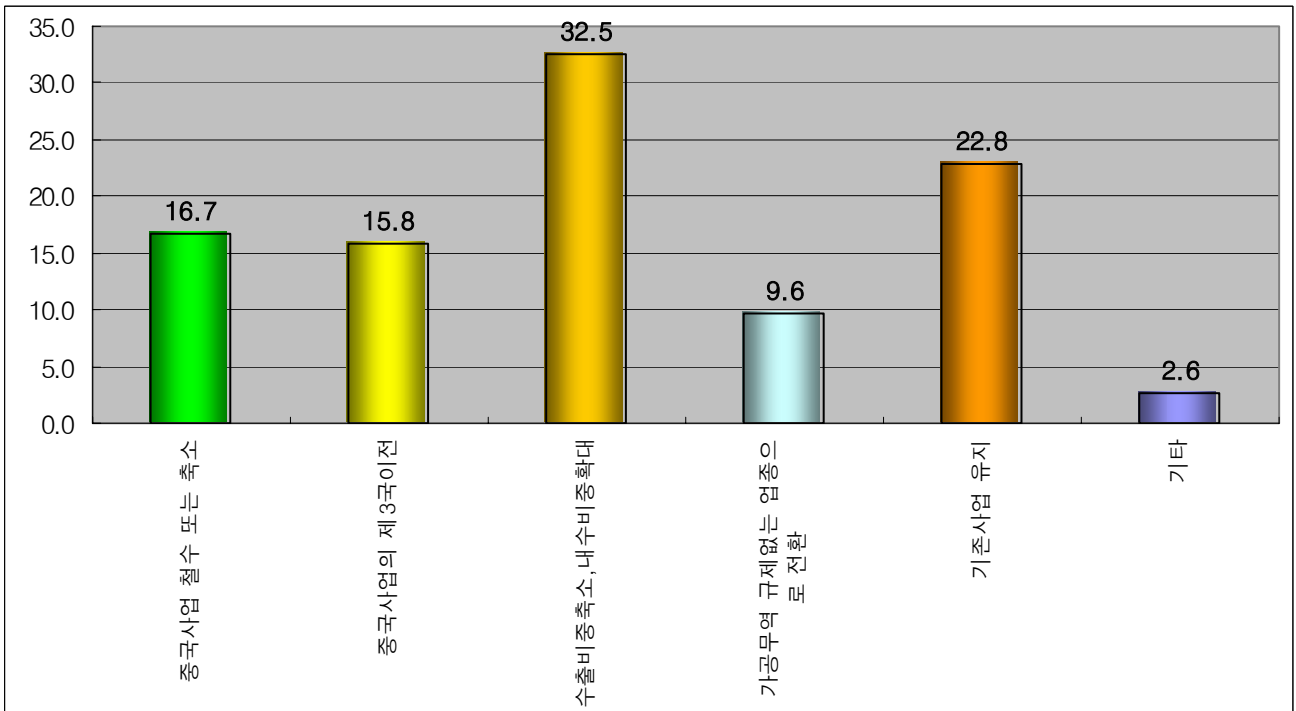


문12.한반도 영구 평화정착과 더불어 3통문제가 해결된다면 개성공단 등 북한내 공단으로 법인 이전의사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33.0%가 잘 모르겠음에 응답했다. 특히 대기업은 62.5%가 모르겠음에 응답했다. 반면 이전하겠음에는 중소기업이 16.7%의 응답율을 보여주었으나 대기업은 0%로 나타났다..



문13.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의 향후 계획을 설문했다.

가장 높은 응답으로는 32.5%를 나타낸 수출비중 축소, 내수비중 확대였다. 다음으로는 기존사업유지로서 전체의 22.8%를 차지했다. 중국사업철수 또는 축소의 응답비중은 16.7%로 나타났다.



### 3. 경쟁력 비교

문14. 동종업종의 현지 중국업체와 경쟁력을 4개 분야에 걸쳐 평가해 보라는 설문에 대해

기술 경쟁력에서는 전체의 35.7%가 매우 우수, 50.5%가 약간우위로 답변했다.(표1)

원가 경쟁력에서는 전체의 5.9%가 매우 우수, 20.8%가 약간우위로 답변했다. 그러나 35.1%는 약간 열위로 응답했다.(표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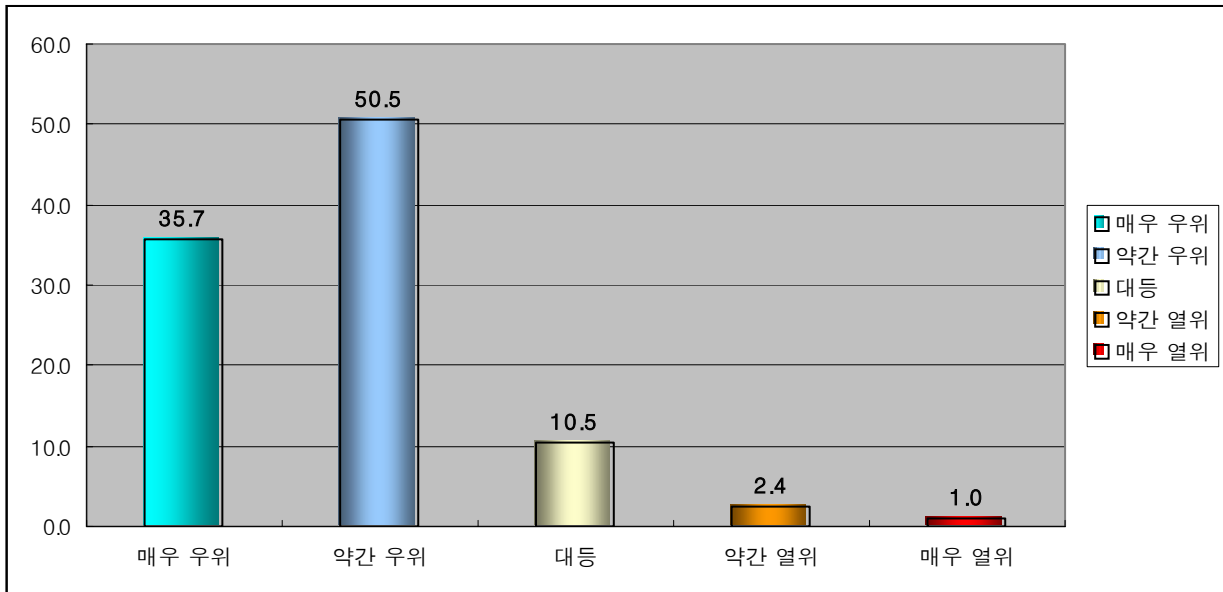
디자인 경쟁력에서는 매우 우수 25.1%, 약간 우위가 50.8%로 나타났으며(표3)

브랜드 경쟁력에서는 매우 우수 26.1%, 약간 우위 48.9%로 조사되었다.(표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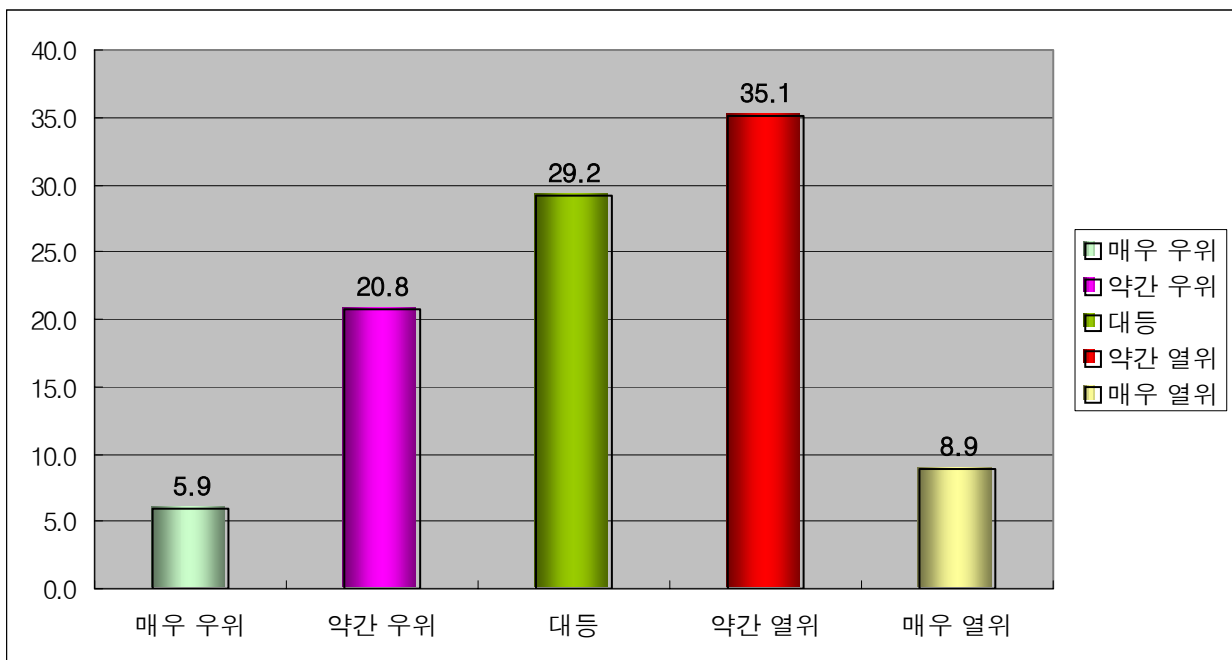
4개 분야에 대한 우수 경쟁력을 상호 비교해볼 때 기술경쟁력 분야가 86.2%로 가장 높게

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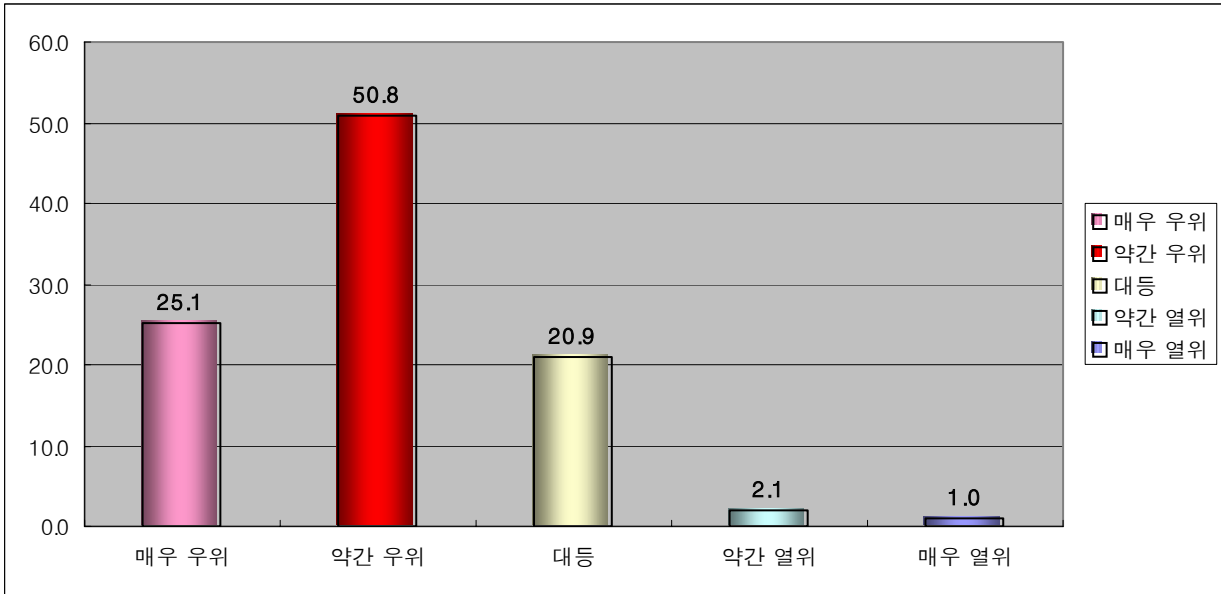
(표1)기술경쟁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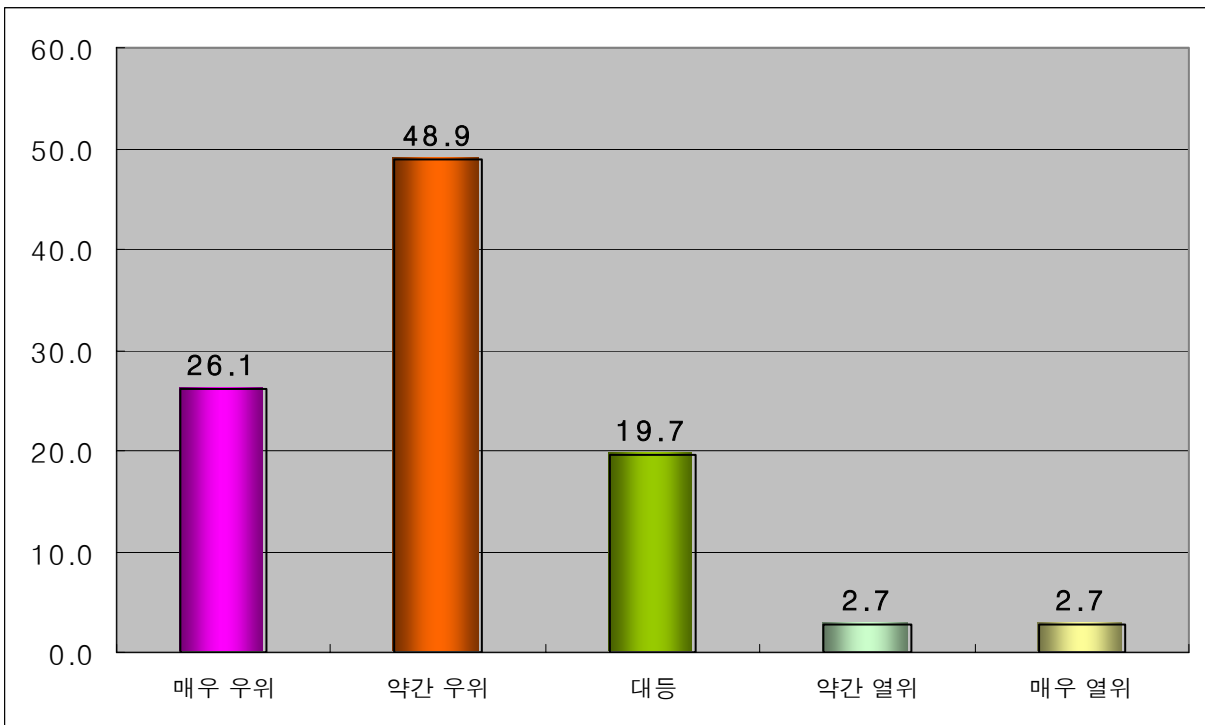
(표2)원가경쟁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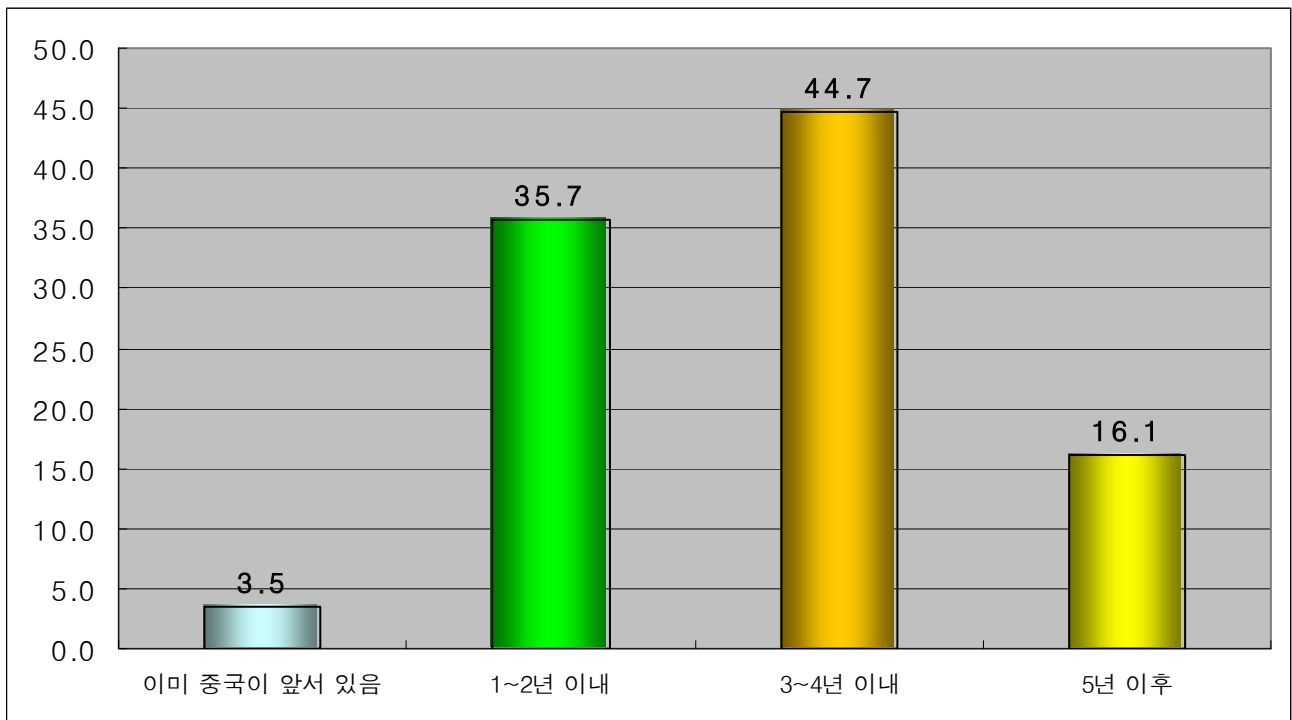
(표3)디자인경쟁력



(표4)브랜드경쟁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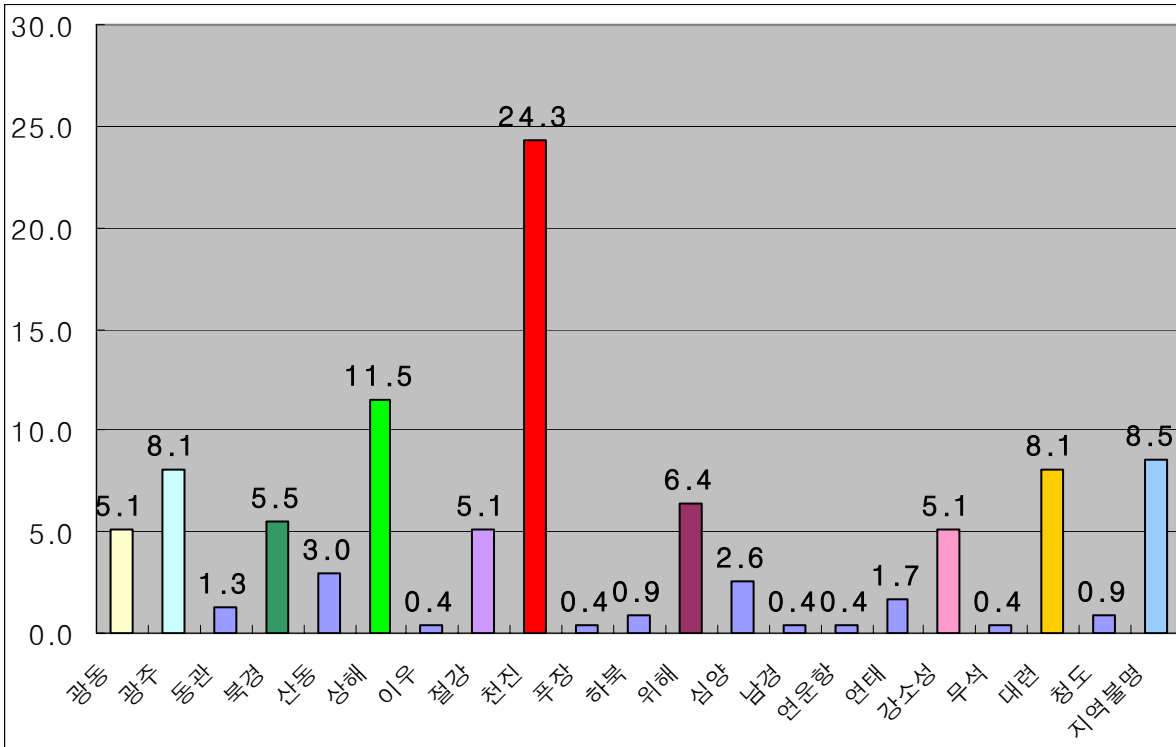


문15.향후 몇 년 후면 중국기업제품과 기술경쟁력이 대등해질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의 44.7%가 3~4년 이내라고 답변했으며 35.7%는 1~2년 이내라고 응답했다. 한편 3.5%의 수치는 하지만 이미 중국이 앞서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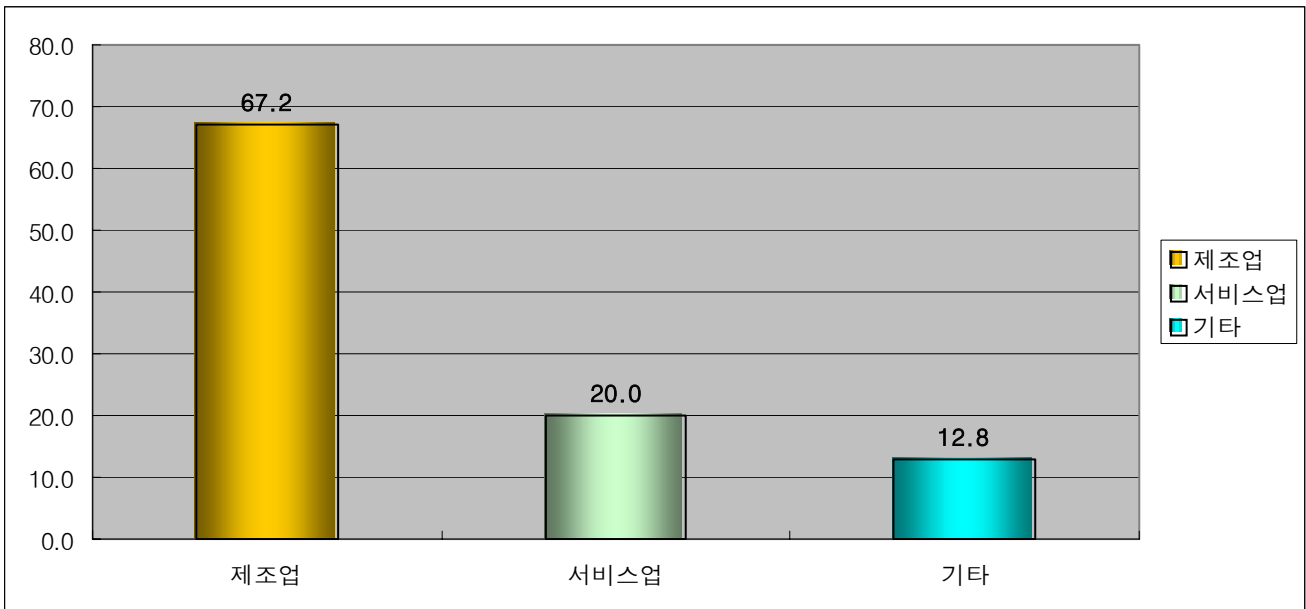


### 3.응답업체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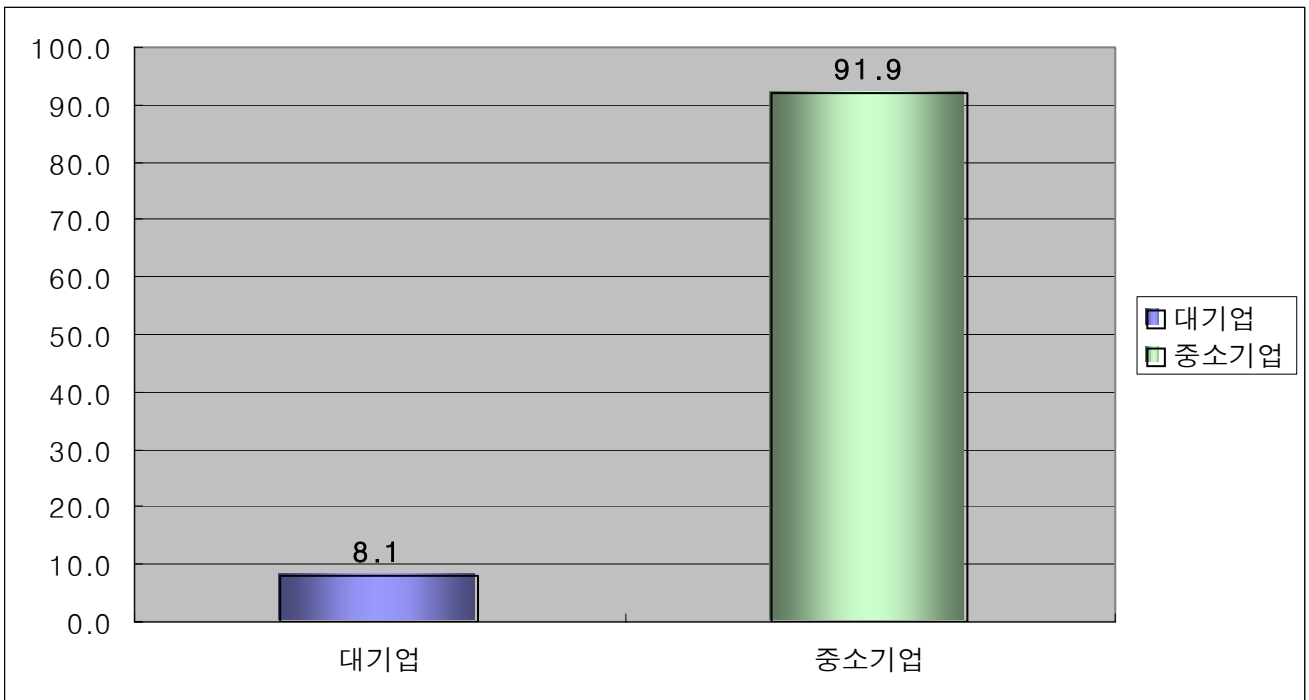
### 소재지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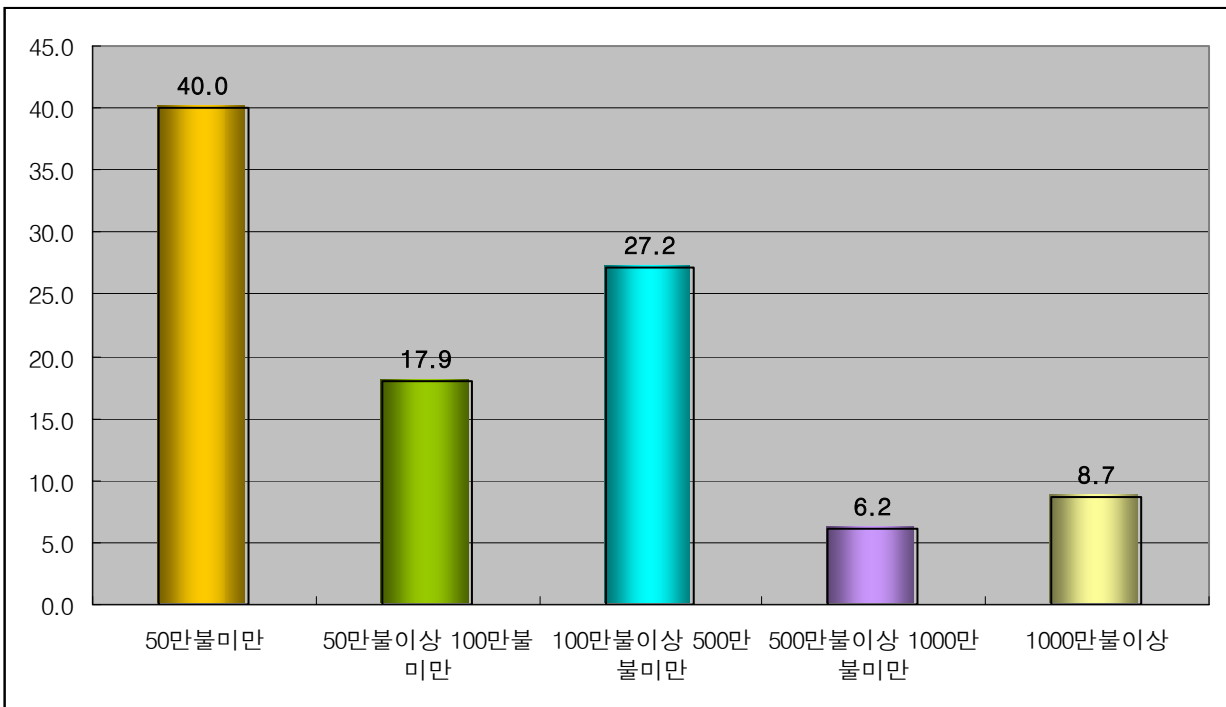
### 업종구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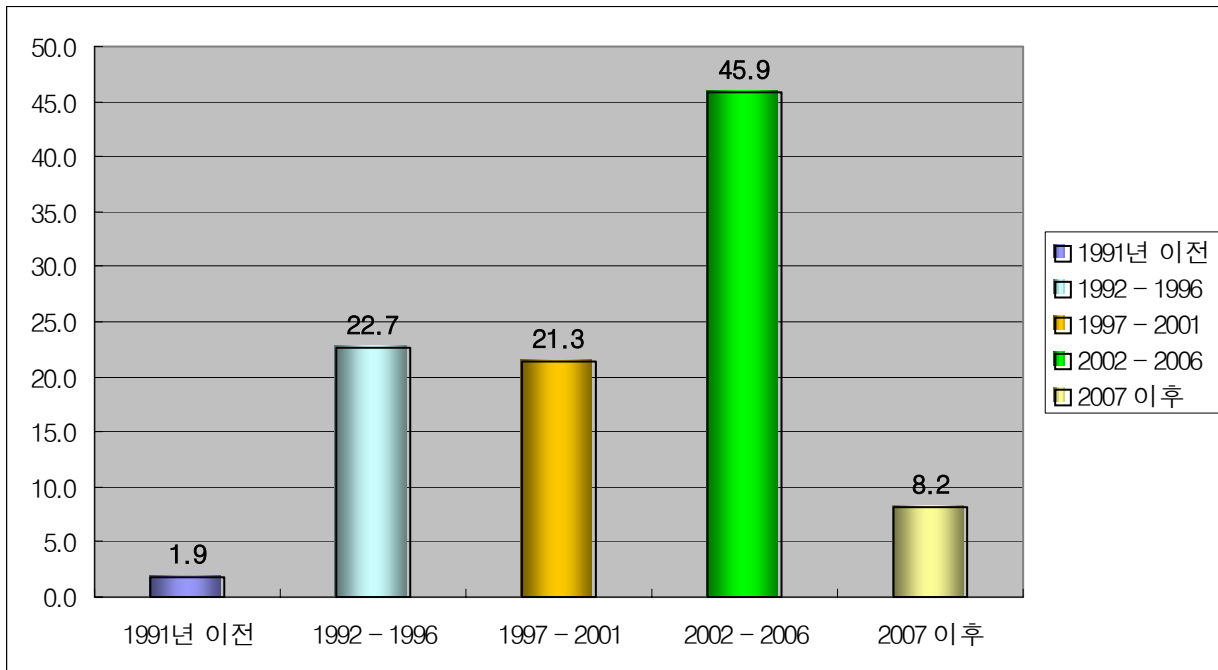
### 기업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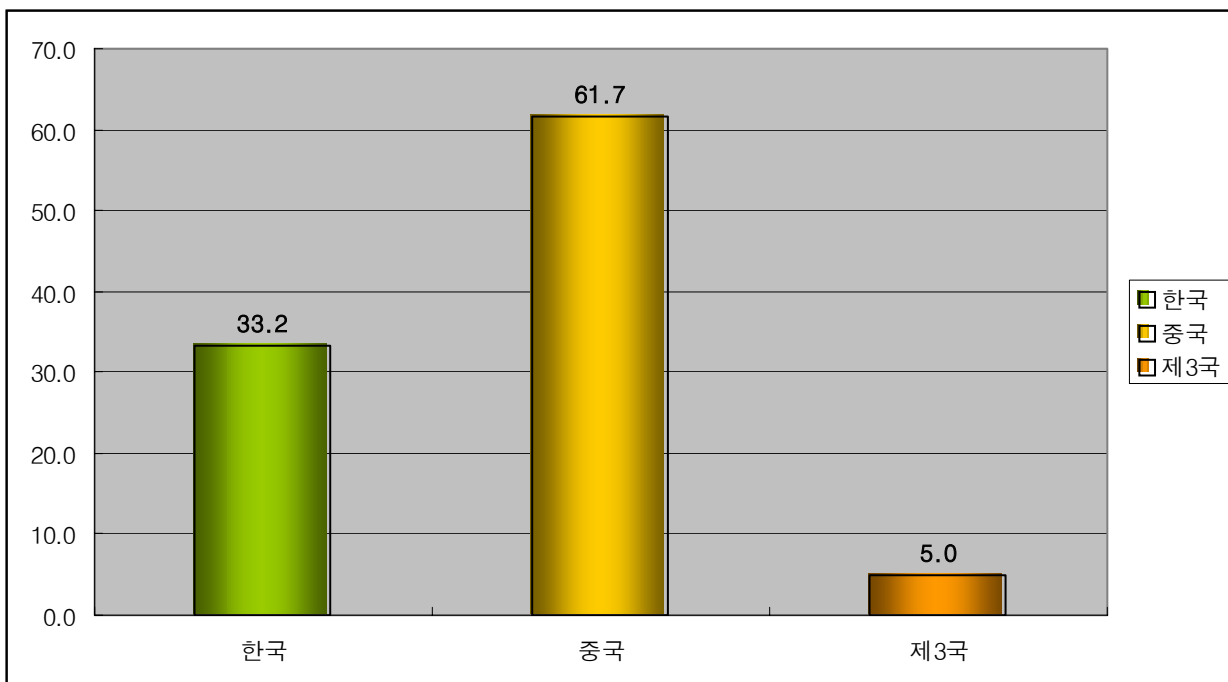
투자금액



### 진출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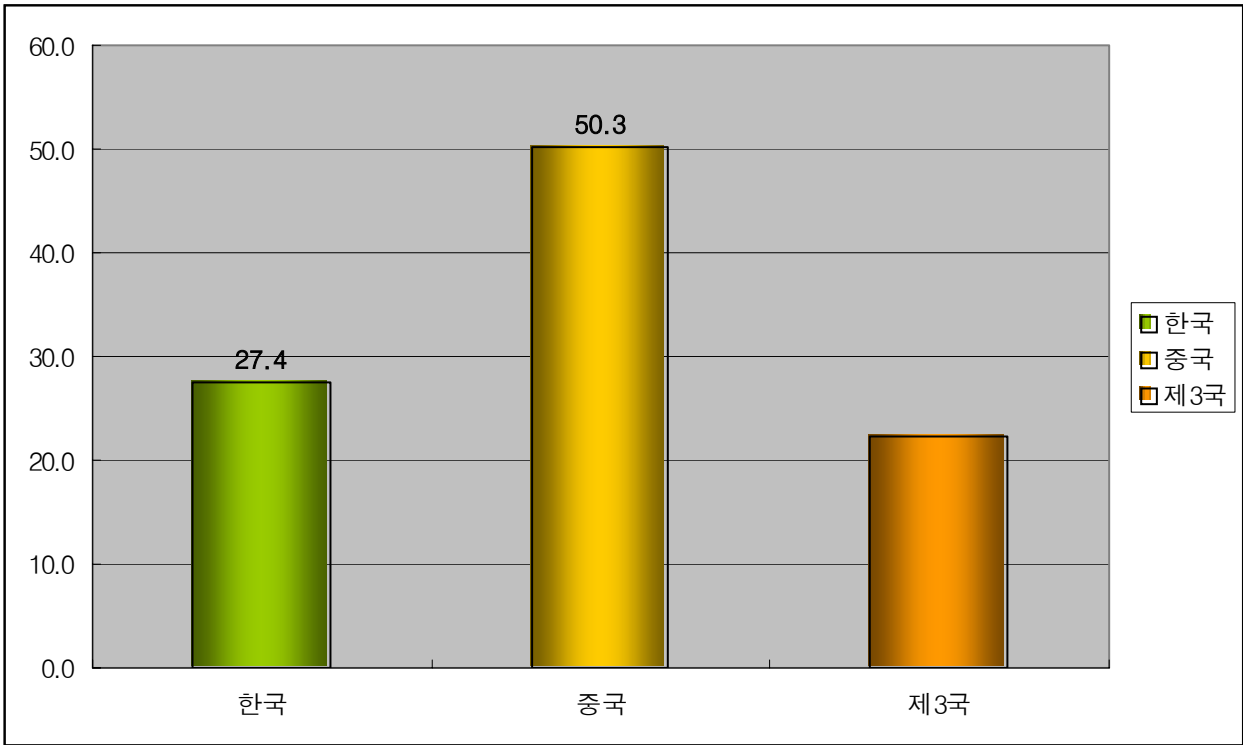


### 원부자재 구입처



### 상품판매처





가공무역여부

